

가격 널뛰는 무·배추·양파 등 농산물 6품목 수급 관리 강화

농식품부, '봄철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무, 배추, 양파, 대파, 토마토, 감자 등 농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을 제값 받아 판매하면서 소비자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 대책도 강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봄철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채소류 소비자물가지수는 121.73으로 전월보다 8.0% 하락해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6개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다.

무, 배추, 감자는 지난 겨울 한파 영향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평년보다 각각 78.8%, 15.1%, 237.1% 뛰었다.

양파, 대파, 토마토는 생산 전 단계에서의 적정 재배면적 예측 실패

로 생산량이 늘면서 시세가 각각 49.3%, 49.6%, 38.8% 하락했다.

가격이 뛴 무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600t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가정용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에 할인판매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학교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는 주요 채소류 가격 정보를 매일 제공해 열무와 알타리무 등 대체 품목의 소비를 유도한다.

배추는 중앙산지협의회를 통해 노지 봄배추 재배 면적을 사전 조절하고, 공급 과잉이 우려될 경우 물량을 수매비축하기로 했다. 중앙산지협의회는 전국 주산지의 적정 생산량, 재배면적을 결정·조정하는 민간 협의체로 지난 5일 출범했다.

감자는 다음달까지 의무수입물량(TRQ) 감자 공급을 200t 확대하고 다음달 말 이후 출하되는 노지 봄감자의 생육 상황을 지속 점검해 향후

수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양파의 경우 지난달 21일 발표한 초과 물량 시장 격리·산지폐기를 골자로 하는 '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이어 정부 수매비축과 소비촉진 홍보를 추진해 안정화에 나선다.

대파는 산지·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진정리 비용 지원 등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토마토는 품위저하품 출하를 억제하고 최대 20%까지 산 값에 판매해 소비를 독려한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주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수급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수급 조절 매뉴얼의 기준 가격을 현실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과 물량도 확대해 주요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푸드플랜도 도입한다.

이윤러 농업인들이 애써 기른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면서 소비자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숙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농산물 6개 품목의 수급은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라면서도 "계속 시장 동향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수급 불만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엠펙리오 아르마니 2018년 스프링/썸머 스타일링 클래스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3층 엠펙리오 아르마니 매장에서 박만현 스타일리스트를 초청해 2018년 스프링/썸머 스타일링 클래스를 선보였다. 엠펙리오 아르마니의 근본적인 신념인 '자유로운'에 기반한 이번 시즌 컬렉션은, 볼륨감과 잔잔한 컬러 등 아르마니 스타일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디자인된 아이템들을 통해 모던함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의류와 함께 핸드백과 기하학적인 스타일의 샌들, 화이트 스니커즈를 비롯한 액세서리들은 자유로운 콘셉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패션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이번 엠펙리오 아르마니의 2018년 스프링/썸머 컬렉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은행 예적금 중도 해지 시 낮은 이율 '개선'

은행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나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에서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휴일 대출금 상환 ▲은행 상품설명서 개편 등이다.

우선 은행에서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소비자가 약정 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은행이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예치 적립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 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적금 중도 해지시 지급하는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기간에 연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개선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 가능
은행 상품설명서도 전면개편

와 관련해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며,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휴일기간 중 대출금 상환을 제한하면서 소비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뱅킹과 ATM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연체이자 납입도 가능하다. 다만 보증기관 확인이 필요

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한다.

은행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과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이 가계와 기업 2개 차주그룹으로만 구분되어 담보대출과 한도대출 등 대출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했다.

수신상품설명서는 적금금리 계산 방법과 중도해지이율, 통장재발급 절차 및 비용 등 상품에 대한 중요 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상품설명서가 없어 소비자가 관련 상품정보를 약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차주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신상품설명서도 개정한다. 또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 설명서도 신설할 계획이다.

뉴시스

중소사업자 53% “체감경기 악화...신규채용 계획없어”

인터파크 사업자회원 설문조사

중소사업자 53%가 체감경기가 악화됐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터파크인터마켓은 자사 사업자 회원 79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분기(1~3월) 중소기업자 체감경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의 53%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38%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호전됐다고 답한 비율은 11%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58.8%) ▲제조업(51.6%) ▲도소매업(50.4%) ▲건설업(49%) 등의 순으로 체감경기 악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체감경기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자들이 느끼는 주요 경영여파사항은 내수경기 침체(34%)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인건비 상승(29%), 원·부자재비 상승(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에도 설문 응답자의 65%는 이달 인력 보강 외에 올해 신규인력 추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사업 확장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 또한 68%로 높게 나타났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